

110 학년도 1 학기 Eurasia 재단 국제 세미나
「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모」 시리즈 강좌(3)
주제: 사법통역의 응용 실무에 대한 탐구

중국문화대학교 110 학년도 Eurasia 재단 국제 세미나 제 3 회 강연에서는 본교 일본어학과 채패청(蔡珮菁) 교수를 초청하여 「사법통역의 응용 실무에 대한 탐구」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본 강연에서 채 교수는 사법통역 업무에 참여하는 방법과 사건을 맡을 경우 반드시 해야 할 실무적 준비에 대해 소개하였다.

먼저 채 교수는 「사법통역」은 2009 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정이라 언급하였다. 국제 인권 조약에 따르면 언어장애인(농아인) 혹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료 통역을 제공하여 그들의 소송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사법통역사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인 법률 지식과 중급 이상의 외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채 교수는 다년간 본교 일본어학과에서 중일 통역 과목을 맡아왔고, 사법통역과 관련된 내용이 강의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 채 교수는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대만 사법통역 협회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동오대학교 推廣部(평생교육원)에서 형법 및 형사 소송법 등 총 8 학점을 이수하여 사법통역 자격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 법률 상식의 조건을 갖추었다. 채 교수는 2017 년부터 지방 검찰청 특별 초청 통역사를 거쳐 대만 사법통역 협회 실습생을 양성하는 種子教師(종자교수: 어떤 지식을 확장하는 것을 책임지는 교수)를 맡았다. 채 교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법통사를 알리는 동시에 대학 교수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본업에 전념하고 있다.

사법통역에 참여하는 방법

사법통역에 참여 방법은 채용과 교육 두 가지 길이 있다. 각 법원과 법률 지원 재단은 비정기적으로 필요한 언어에 대해 특별 통역을 요청하게 되는데 일본어 통역인의 수는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는 동남아 언어 위주로 모집하고 있다. 대만 사법통역 협회의 교육 과정은 기초 윤리, 행정소송, 형사 및 민사, 실무 연습 각각 8 시간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인 수업 방식 이외에도 경찰서 등 사법통역 업무에서 접하게 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VR 교육 수업도 있어 상당히 진일보하였다.

실무 사례 접수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

실무 응용 측면에서 두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사법통역사는 윤리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사법통역의 기본 윤리는 회피 원칙, 비밀 유지 원칙, 사건을 주도하지 않는 원칙, 중립을 지키는 것, 통역사 역할 외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 감당할 수 없는 업무는 맡지 않기 등이다. 나아가 실질적인 운영 규정의 이행은 다음 단계와 같이 나뉜다.

1. 사건 접수 전: 사건의 유형을 파악하고, 통역 대상자를 인지하고 있는지(신변 안전

문제), 통역하는 언어가 자신에게 익숙한지(같은 나라 사람들이라도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할 수 있어 언어가 불완전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예: 인도네시아어와 자와어의 차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등록: 개정 1-2 개월 전에 소환장을 받게 되며, 사건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여 사건의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다. 신분증, 소환장, 제복을 준비하고(재판 전 착용 권장) 정시에 법원(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출석한다. 법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금속탐지기 등의 보안 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등록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3. 개정: 통역을 하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며, 개정 중에는 휴대폰을 꺼야 한다. 사법통역은 기본적으로 점진적인 통역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인의 습관 등의 이유로 필기를 해야 하는 경우 판검사의 동의를 있어야 필기도구를 받을 수 있다. 사용한 종이와 펜은 나중에 회수되므로 법정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 없다.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통역 대상과 적절한 거리 유지를 해야 한다. 필기로 기록을 할 경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4. 종료 후: 판검사에게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고 출납부에서 통역비를 지급 받는다. 비용은 시간이 아닌 건으로 계산된다. 비용은 한 건당 1,000-3,000(대만 달러) 정도로 일상 생활을 하기에는 매우 낮은 금액이다.

채 교수는 법률 서적에 소개된 모의 법정 부분을 이용해 재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또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재판 당시 상황, 피해자에게 사건에 대해 심문하는 방법 등 검사의 업무를 소개하는 영상도 보여주었다. 본 강연은 교수와 학생들에게 사법통역사로 참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강연 마지막 부분에서 채 교수는 통역사는 심문 과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였다. 대만의 사법통역은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본 강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사법통역에 대해 이해하고 합당한 사람을 선발하거나 교육시켜 사법통역 대열에 합류할 것을 바란다고 하였다.

(웹사이트: <https://eurasia.pccu.edu.tw/index.php>)

번역: 이세희(李世曦) 한국어문학과 석사과정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부교수